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1.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급

2013. 05. 2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 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3:7~13]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둔다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잘 지켰으며 유대인의 회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과 그들 중에 몇을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끝났지요?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설명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답: 예수께서는 사단의 회당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9절 후반을 보면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악인에게 심판이 성도에게는 신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에 심판한다는 단어와 22절에 성도들을 신원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요. 여기도 같은 맥락이고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다니엘 7:9~14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예언된 시기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핍박하는 무리를 심판하는 것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10절인데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지요.

[계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인데 그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1) 제국로마의 핍박의 때입니다. (2)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교권로마의 핍박입니다. (3)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할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14:6에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였고, 행 17:31에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계시하셨으며, 벰전4:17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시험을 면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 시대를 표상하는 것이지요.

2.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때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8:14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나면서 심판의 시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다니엘 9:25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가 시작점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5457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입니다. 그때부터 2300년이 끝나는 때가 184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심판의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심판에 대한 계시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심판하는 보좌를 베풀고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 광경에 대한 계시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다니엘 7:9~14이고 다음이 계시록 20:11~15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천년기 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기록은 천년기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천년기 전의 심판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은 성소정결 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성소봉사를 할 때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가 있는데, 성소봉사는 매일하는 봉사이고 지성소봉사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봉사입니다. 그날이 속죄일인데, 유대인은 욥키푸르, 곧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일 년 동안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여 속죄를 받았으나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의 확실한 정죄를 위하여 그 용서받은 죄들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일에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책임을 묻는 데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확실히 정죄되고 사형 판결을 받으면 그때 그 기록된 모든 죄가 소각됩니다. 그것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정결해졌다는 선고를 듣는 날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지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까지 예수께서 주신 그들의 몫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은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성

소정결봉사 곧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과 그 배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봉사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그 시대에 증거할 때에 많은 교단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 즉 아주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소봉사 진리를 받아들이고 증거에 합류하는 것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 굴복하게 하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런 일로 깨달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기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시대는 두아디라 시대를 1517년까지 보든지 1798년까지 보든지 상관없이 1844년에 끝난다는 것은 동일하군요.(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속히 임하리라”는 것인데요?

답: 예, 성경구절을 읽고 얘기를 나눕시다.

[계3: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임하리라는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처음 나타나고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에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속히 임하여 그 입의 검으로 배교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말씀인데, 즉 싸우기 위하여 속히 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속히 임하십니다. 속히 임하시는 목적이 다르지요. 임하신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도 했습니다.(2:5) 여기는 “속히”라는 말이 없지요. 그러나 버가모와 빌라델비아에는 속히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버가모에는 진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속히 임하시고 빌라델비아는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속히 임하시는데, 이것은 재림으로 성도들에게 승리의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심판으로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뜻이며, 정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굳게 잡고 지켜서 면류관을 받으라고 격려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진리를 굳게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4. 이 상급 외에 12절 말씀도 상급에 대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그 말씀도 읽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계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지방은 지진이 잦아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자주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으로 비유로 하고 있는데,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신전의 돌기둥뿐이었습니다. 지진과 폐허 가운데 남아 있는 신전 기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

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을 누릴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전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왕상7:21)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실 것이며, 그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런데 목사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는 기둥 위에라는 뜻입니까?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그리스도께서는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Tiberius)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된 후 “네오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받았고 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성을 따라 “플라비아”로 개명되었습니다.(A.D. 70-79)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좋은 상태로 변화할 것이라는 약속이 됩니다. (1) 하나님의 이름;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지어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것으로(빌3:20)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급은 7장과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4,000명과 같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들도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은 하나라고 마태28:19이 계시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세 이름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단수입니다. 삼위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성에 있어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을 잘 알고, 그분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확인을 하시는 것이 기둥이 된 그들 위에 이 이름을 기록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7장에는 인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깁니다.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새 예루살렘 시민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인데, 그분이 받은 새 이름은 구주라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로서의 의미에 무게가 실린 이름인데, 구주라는 이름은 재창조주로서의 의미에 무게가 실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이지요. 예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니깐요. 그러니까 이 세 이름을 준다는 말씀은 창조와 구속으로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급이라고 이해됩니다.

6. 설명을 듣고 보니 참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교회에 빠짐없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뜻이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잖아도 시간에 쫓기는데 말입니다.(그렇습니다.) 이제 빌라델

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남았습니다.(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시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읽은 후에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겠지요. 계3:14~22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계3:14~22]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맙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는 일곱 교회가 있는 도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에베소와 가까워진 위치에 있는데,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맞은편으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새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세 곳은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골 4:13,16) 튀쿠스강 계곡에 위치한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브루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또한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골4:12,13)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그 백성을 심판함” 혹은 “심판 받은 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정의됩니다. 거의 같은 뜻이라도 후자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II세 테오스 (Antiochus II Theos, BC 261~246)가 건설하였고, 그의 아내 라오디케(Laodice)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약 40년간 존속해 온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 회중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 인들에게 라오디게아 인들과 서신을 교환하라고 지시하였지요.(골 4:16) 이 도시는 지금도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나는 1844년 이후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의 뜻이 심판 받은 백성이라고 설명했는데, 헬라어 라오스, 백성과 디케, 의롭다가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디케는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말하면 심판으로 의롭다고 선고된 백성이라는 뜻이 되지요. 심판 시대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기에 알맞은 이름입니다.

7. 이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독특한 칭호로 편지를 하셨네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 처지와 상태를 따라서 적절한 칭호로 편지를 하셨는데, 이런 칭호로 편지하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답: 그럼요. 당연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공존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요. 이 교회는 이 두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들이 칭찬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진리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겠지요.

8.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런 칭호로 말씀하신 뜻을 설명하시지요.

답: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칭호로 편지하셨지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라고 번역된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상태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로서 충성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